

부활절 네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sup>TH</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1년 4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48 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 55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7 번 시편 (Psalm) 6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미가 (Micah) 6:6-8</b>	김숙희 집사
설 교 Sermon	<b>“다시 만나는 교회(24) – 공의를 행함으로”</b> <b>(Gathering Together Again – Acting Justice)</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흥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했고,  
오히려 죄악과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던 사데 교회와 비슷했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교만과 거짓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와 공의를 좇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 6:8, 계 3:1, 계 3: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글개역 **미6:8**)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NIV **Micah 6: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5 (주일)	4/26 (월)	4/27 (화)	4/28 (수)	4/29 (목)	4/30 (금)	5/1 (토)
본문	민2 시36 전12 몬1	민3 시37 야1 히1	민4 시38 야2 히2	민5 시39 야3 히3	민6 시40,41 야4 히4	민7 시42,43 야5 히5	민8 시44 야6 히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28수 오후7:30)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2:12-17)
토요 새벽기도회 (5/1토 오전6:30)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시359:24)

지난 주일(4/18)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3) – 환대와 배려로” (신 10:16-2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는 (다름 아닌)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마25:40,45)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신10:19)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약속장식이나 소외나, 차별이 아니라, (참된) 환대와 배려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환대와 배려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1)첫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신10:16), 이는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하라는 의미이고, 2)둘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데(신10:17-18),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3)셋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대해야 하는데(신10:19-20), 이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환대와 배려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교회로 부름 받는 우리 모두의 소명임을 깨닫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환대와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